

빈틈없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집중

전주시, 올해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장 가동 위해 대수선공사 434억원 투입

전주시가 새만큼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빈틈없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는 올해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장 가동을 위해 4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내의 기계·전기·건축·토목설비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추진하는 등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덕진구

송전동에 지난 1990년 1단계 처리장을 준공한 이후 2~3차에 걸쳐 추가 처리 용량을 확보해 현재 하루 평균 36만 톤의 하수를 처리 후 방류하고 있다.

또, 전주혁신도시 개발 이후 지난 2015년 전주혁신도시와 완주군 이서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혁신수질복원센터를 구축해 하루 평균 1만 4000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1월부터 BTO사업(민간 투자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후 일정 기간 시설 운영) 운영기간이 완료된 이후 관리대

행용역을 추진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관리대행 운영계약을 완료 후 운영 중이다.

시는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및 대수선 공사에 연간 약 327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약 434억 원을 시설 운영 및 개선에 투입하여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개년간 다수 발생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질식사고 등에 대

비해 현장 작업 시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질식사고 예방교육도 철저히 이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발생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와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빈틈없는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를 새만큼 상류지역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열린 청년 공간 '청년이음전주'

전주시, 맞춤형 정보 제공·소통·교류의 장 탈바꿈

전주시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이음전주'가 청년들을 위한 감성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시는 청년이음전주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상담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단장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은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이들의 소통과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열린 청년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시는 일자리·창업·법률·주거·정신건강 등 1:1 개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독립 상담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개인화 습실 공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공유라운지 역시 한층 더 편안한 분위기로 개선해 청년들이 언제든 드나들며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 문화 공유 공간인 '틀 갤러리'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하고, 서로의 감성과 창작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교류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이음전주 공간 곳곳에는 '청년 참여 공감 문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반영한 따뜻한 문구들로 채워져 공간 이용자인 청년들에게 공감과 위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미래 꿈나무 대상 상반기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마무리

전주시, 초등학교생 250여명 참여

전주시는 28일 대성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끝으로 올해 상반기 예정된 초등학교생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래 주역인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권 관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매립장을 차례로 방문·체험하며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체험했으며, 전주시니어클럽 환경강사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



전주시는 대성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끝으로 올해 상반기 예정된 초등학교생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했다.

또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의 방법을 배우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현장 견학을 통한 자원순환교육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에도 점차 긍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생활환경센터 '다시봄'은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다양한 생활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jxch.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31-6600)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전자고지 할인 혜택

전주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할인 혜택을 꾸준히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는 상하수도요금을 은행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는 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액의 1%(최대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 메시지

나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요금 고지서를 대체해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월 2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요금 자동 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은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누리집 또는 전화(063-281-6860)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월 200원이 할인되는 전자고지는 자동납부(은행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 중이거나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결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운동목 전주부시장, 사전투표 준비 상황 최종 점검

운동목 전주부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시행 하루 전인 28일 효자2동 사전투표소인 완산구청 4층 회의실을 찾아 사전투표소 설치 및 최종 모의시험 상황을 점검했다.

윤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투표소 설비 및 통신망 연결 상황을 확인하고, 보안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 시험 출력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통신망 단절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방법과 관리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

방선거'를 위해 사전투표소 35개소와 선거일 당일 투표소 163개소(완산구 87개소, 덕진구 7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선거일 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 당일 모든 투표가 종료되면 전주화산체육관과 전주덕진실내배드민턴장 등 2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운동목 전주부시장은 "국가 대사인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운동목 전주부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시행 하루 전인 28일 효자2동 사전투표소의 완산구청 4층 회의실을 찾아 사전투표소 설치 및 최종 모의시험 상황을 점검했다.

투표사무원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선거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대비 대응 강화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에볼라바이러스병과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의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감염병 발생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뒤, 지난 17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또,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기반으로 중점감염관리지역을 남수단과 우간다, DR콩고,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5개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또 해외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는 치명률은 높으나,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낮아 국내 감염병 발생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및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는 의심 환자 감시 및 진료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